



제 2 의 出發點에 서서

會長 李 濤

(韓國國立公園協會)

우리나라의 國立公園運動은 1967년말 智異山이 國立公園으로 指定되면서 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政府가 公園法을 制定한 以來, 이것을 發展的으로 自然公園法으로 바꾸고 各級 公園地域을 指定하여 建設한지 近 10餘年間, 우리나라의 自然公園은 새 秩序를 잡으면서 國民大衆 속 깊이 파고 들어 公園이 生活의 새 舞臺로 認識되고, 그 利用者는 날로 增加一路의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 公園은 우리 情緒生活 속에 필요불가결의 存在로서 現代社會의 精神修養場으로 登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國民의 自然公園運動을 主導하며 公園發展에 寄與한다는 目的下에 設立된 國立公園協會는 創立된지 꼭 10年の 歲月이 흘렀습니다만, 自然公園運動의 前衛로서의 役割을 勘當하기에는 아직도 未洽한 點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우리 國土의 아름다운 自然을 保存하고 이것을 國民情緒涵養의 道場으로 利用해야 할 自然保護, 公園關係者 모두가 깊이 反省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10年間 學術分野에 있어서 國立公園 指定에 貢獻하고 調査·研究의 體系를 세운 일만은 認定을 받을 만한 功勞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時點에서 自體의 過去를 反芻해 보는 것은 보다 새로운 來日을 設計하고 進路를 設定하자는데 참 뜻이 있는 것입니다.

本會는 지난 2월에 열린 定期總會에서 보다 活氣있는 80年代를 맞는 協會로서의 跳躍을 위해 一大改編을 斷行하고 第2의 出發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開催될 86年 아세안 게임과 88年 올림픽을 맞이할 우리 國土를 世界人의 눈앞에 보다 아름답게 公開하여야 할 役割과 任務를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88年代는 우리 民族의 또 한번의 跳躍期로서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先進 韓國을 浮刻시키는데 온 國民이 總力を 集結해야 할 時代的 責務가 負荷된 年代입니다.

우리 協會는 自然公園運動의 前衛로서 自然公園의 保護와 公園 本然의 役割과 機能을 活性化할 수 있는 方案을 模索하며 利用者들의 便宜施設 擴充으로 快適한 休息을 즐길 수 있도록 啓導하며 公園 利用者들의 意識 속에 自然의 숨길을 심어 주어 社會·經濟的 發展에 擴大再生産의 밑거름이 되도록 役割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